

## [新家庭] 창간사

[新家庭] (1933년 1월 창간호)

(註:오늘날 [女性東亞]誌의 전신인

[新家庭]의 창간사이다.)

우리는 진실한 의미에서 가정생활을 갖지 못한 사람들이다. 그리고도 이 사실에 관심하지 아니합니다. 그러나 가정이란 것이 사회적으로 어떠한 의의와 가치가 있는 것인 줄을 깨달을 때 우리는 비로소 이 가정문제를 중대시 아니할 수가 없게 됩니다. 가정생활의 불완전이란 것은 그 결과가 단순히 가정생활 그것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고 그 불행의 남은 물결이 그대로 사회생활에까지 밀려 점점 견잡을 수 없는 큰 현상을 지어내고야 마는 것입니다. 그러므로 우리 사회가 남의 앞에서 떨쳐나지 못하고 남보다 기름지지 못한 것을 생각할 때에는 하나 둘이 아닌 여러가지 연유를 말하게 될 것이지만 그 위에 무엇보다도 사회의 기초를 지어 있는 이 '가정'의 모든 문제를 제시하지 않으면 안될 것입니다. 새 사회를 만들자, 광명한 사회를 짓자 하는 것이 우리의 다시없는 이상이라 할 것이면 먼저 그 근본적 방법인 점에서 새가정을 만들고 광명한 가정을 지어야만 할 것입니다.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 우리의 가정을 새롭고 광명하게 만드는 것일까? 이것이 우리의 긴급히 해결하지 않으면 안될 중요한 문제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. 물론 여기에는 인격문제, 교육문제, 경제문제, 취미문제 등 여러가지 세분할 이론이 있는 것입니다마는 전체적으로 보아 각각 그 책임에 전력을 다해야 할 것만은 거듭 말할 필요가 없는 일인줄 압니다. 그런데 가정문제의 모든 책임이야 그 가정의 전원이 다 가지고 있는 것이지만 그중에도 특별히 주부된 이가 가장 그 무거운 짐을 많이 지고 있느니 만큼 우리는 가정 문제를 생각할 때 누구보다도 먼저 주부된 이를 목표로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. 혹 세상이 가정주부의 지위와 그 사회적 가치를 잘못 인식하여 남자에 대한 한개의 종속적 존재로만 말하는 이가 있으나 그는 결코 그렇지 아니합니다. 만일 '조선'이라는 사회를 이천만이라는 개인 분자를 떠나서 생각할 수 없는 것임이 분명하다 하면 꼭 같은 이론으로 사백오십만이라는 가

정분자를 떠나서도 설명할 길이 없을 것이 물론입니다. 한 가정이 새롭고 광명하고 정돈되고 기름지다고 하면 그것은 그 개인 그 가정만의 행복이 아니라 그대로 조선사회 조선민족의 행복으로 볼 것입니다. 그렇거늘 어찌 주부의 지위와 그 가치를 예사로히 말할 수 있겠습니까. 우리는 조선사회의 새로운 건설을 꾀하는 그 방법으로 여러 가지를 생각할 수 있는 동시에 이 가정문제라는 것을 중대시하는 의미에서 이 [신가정]을 발간케 된 것입니다. 내용에 있어 가정의 실제문제와 그 상식, 자녀의 교육과 그 방법 등 가정주부의 필수 지식을 전하는 것이야 물론 그밖에도 각방면의 상식을 구비케 하고자 하는 이 모든 의도가 필경은 지식적, 실제적으로 가정을 향상시키려 하는 한 뜻에 있을 따름입니다. 사회에 대한 본지 발행의 미충이 얼마만큼 클지 적을지는 우리의 지금 점철 일이 아니요, 다만 이 충심에서 주저없이 첫 발걸음을 내딛을 뿐입니다마는 이에 임하여 만천하 여러분의 도움과 바로잡음이 끊이지 말아주시기를 삼가 바랍니다.